

로컬리티 문화 표상과 지역 문학관의 재구성

— 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 — *

박승희**

|| 차례 ||

- I. 로컬리티와 지역 문학의 표상 체계
- II. 본론
- III. 결론

【국문초록】

지역문학관은 로컬리티 문화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로컬의 문화적 표상체계를 통해 지역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문학관은 한편으로 지역적 편협성, 자기지시성과 같은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앙의 획일적 문화정치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로컬 문화의 실현 공간으로서 지역문학관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학관은 로컬리티의 가치를 토대로 다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로컬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 주민들의 일상 및 생활세계와 교감하는 문학관, 교류와 문화적 생산을 실험하는 장소로서 문학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로컬리티 문학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로컬리티의 실천적 방향과도 연결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로컬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문학관을 제안하며, 지역의 주체, 즉 주민들의 참여와 기획, 운영과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학관을 지역의 다양한 삶들과 연계되는 생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역 문학관이 지역 작가의 육필 원고 등만을 전시하는 ‘자료 페티시즘’의 장이 아니라 지역 문학의

* 이 연구는 2014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상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안팎의 다양한 문학적 생태들과의 교류 및 관계를 지속 하는 상호텍스트적인 문학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지역문학관이 진정한 로컬리티를 실천하는 문화의 장이자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지역문학관, 로컬리티, 문화표상, 지역문학관, 공공성, 일상

I. 로컬리티와 지역문학의 표상 체계

주지하다시피 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로컬리티(locality)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특히 로컬리티 연구는 지역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중앙/주변의 획일적 논리로부터 문화정치학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로 이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로컬 연구는 최근 새로운 문화연구의 주제이자 로컬 문화를 재발견하는 실천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는 로컬리티와 로컬적인 것(the local), 로컬 문화를 모든 지방자치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로컬 사회 내부의 개발과 발전 논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로컬리티 연구의 왜곡 현상은 결국 로컬을 또 하나의 중앙 권력을 지향하는 구조로 인식하는 새로운 문제로 이어졌다. 이것은 지자체를 비롯한 로컬 내부의 권력 구조가 로컬리티의 의미를 지역의 편협성, 근시성, 자기지시성 등으로 물화시키는 전방위적인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로컬리티 연구는 고정적이며 정태적인 공간과 장소 혹은 자기중심적인 역사 회귀로 문제를 자기화 하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거나 상품화 되고 있는 로컬

문화 콘텐츠 사업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나 인물,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이 문화 콘텐츠로 재구성되면서 로컬 문화의 표상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그것은 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관, 혹은 관광자원으로 리모델링 되고 있는 지역의 역사 공간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거대한 박물관의 구조물 속에는 지역의 역사 자원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뒤 이를 국가적인 위상에서 기념하는 신화적 메카니즘이 박물관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로컬 문화가 국가/중앙의 '정전화'의 획일화된 표상체계를 균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정전적인 표상체계와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컬의 다양성, 차이와 이질성을 역사와 문화 양식 등에서 재발견 하지는 로컬리티가 복수의 중앙을 구조화 하는 상황으로 전도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지방 정부들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로컬 내부의 문화 권력 등이 이를 주도하면서 로컬 문화의 행방은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지역 문학관 또한 지방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 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지역성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간으로 설립되었지만 한편으로 지방 문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창출과 관광증진 등을 위한 지자체의 경쟁적인 문학관 유치에 로컬리티의 문화 다양성을 오히려 획일화하거나 경제적 가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의 전략적 도구로 지역 문학관이 경쟁적으로 세워지면서 로컬 문학은 문화도시의 상징으로 특정 작가나 인물을 상품화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 체계는 문화적 지평 위에서 진행되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작가와 지방 정부, 국가가 동일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학에 대한 대중의 기억과 정전적 문학교육의 결과를 로컬 문화로 표상화 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로컬을 특정 가치로 물신화시키거나 자기중심적인 역사 인식에 대한 논의를 반성하고, 로컬의 역사와 문화를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이 상호교차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로컬 연구의 전환적 흐름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로컬리티가 공-현존(co-presence)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회관계들과 사회과정들로부터 생겨난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 이는 로컬리티가 로컬 내부의 폐쇄적 자기 구조를 넘어서 지역과 지역을 교차하고, 지역과 중앙의 문제로부터 다양한 차이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로컬리티를 재발견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로컬 문화와 관련하여 로컬의 역사문화나 정체성을 다양성과 지역적 삶에 기반한 문화적 구조물로 바라보는 의식적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문화관은 지역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문화 다양성의 구체적인 실현 공간이자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문화적 표상 체계가 구축되는 현실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역문화관은 단순히 로컬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에서 구성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유와 교류의 문화 전략이 교섭하는 로컬 문화의 표상 체계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대구 문화관의 경우, 이러한 지역문화관의 현재와 한계, 가능성 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어 진정한 로컬 문화의 표상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글은 지역 문화관의 하나인 대구 문화관을 통해 로컬 문화의 방향과 로컬리티의 표상 공간으로서의 문화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1) D. Massey, 『The Politi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p.138-139.

2) 김남주,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공간의 생산』과 실천」, 『공간과 사회』 14, 2000.; 장희권, 「로컬의 현실과 재현문제」, 『동아시아 문화연구』 46, 2009. 등은 지역의 문화공간이 재현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다양성과 차이, 지역적 표상체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통해 로컬 문화의 표상 체계를 재구하고 있다.

대구 문학관은 2014년 10월에 건립되었다. 지역 문인들의 오랜 바람과 대구시의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문학관은 1991년 박화성문학관(목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0여 개의 문학관이 개관하였다.³⁾ 지역문학관이 지역문학의 정신 계승 및 활성화란 가치와 지역의 고급 문화상품 개발이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문학의 지역적 기반을 확장하고 심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이 지역 정체성의 원 소스(one-source)가 되거나 지역 이미지 제고의 재료가 된 것은 지방자치제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역 문화자원이 지역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호가 되고, 이 기호를 지역의 콘텐츠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문학은 지역 정신과 인물, 문화적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자원이란 점에서 이른바 ‘문화적 도시 재구성(cultural city reformation)’의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지역문학관은 ‘지방 문화 활성화의 도구’⁴⁾적 의미가 크다. 지역문학관이 문학 정신의 계승과 활성화의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그러하거나와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 지역 이미지 창출, 관광증진 등 지자체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문화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지역문학관이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개인 작가를 단순 기념하거나 특정인들만을 위한 향수적 공간으로 기능화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문학(작가)과 기억, 그리고 지역을 매개하면서 그 이

3)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문학관의 수는 61개이다.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munhakwan.com/>

4) 김종우·윤학로, 「김유정 문학촌과 이효석 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비교문학』41, 2007, p.376.

면에 놓인 무수한 ‘문화적 교류와 협상’의 전략들이 충돌하고 교섭하는 장소로 문학관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⁵⁾ 문학관이 단순한 물리적 전시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운영주체, 지역문인, 수용자)들이 입체적으로 교류하고 문화적 생산을 실현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사실 일정하게 배열된 수동적 전시와 관람의 동선은 대상에 대한 인식적 사유보다는 시각적 즐거움에 탐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시물에 대한 ‘시각적 즐거움’은 이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 작가가 남긴 유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의 내용물을 교체할 수 있는 여지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몇 년이 되어도 항상 똑같은 전시물만 있는 공간으로 전략하여 결국 관람객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문학관을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⁶⁾ 그러므로 자료의 소장 가치로 문학관의 위상을 내세우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지역문학관이 지역의 로컬리티(locality)⁷⁾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즉 지역의 문화지형 속에서 지역의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전시할 것이며, 작가와 장소, 텍스트는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가, 또한 로컬 문학적 사유와 실천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즉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가 문학관의 핵심 기제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지역문학관이 로컬리티의 재현이란 입장에서 다양한 문화적 사유와 교섭

5)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36,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3.3, p.33.

6) 정경운, 「한국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25, 2005, p.38.

7) 여기서 로컬리티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인간과 기억, 자연 공간이 자율적 삶을 실현하는 공간이나 장소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본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창조와 소통, 통섭적 삶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와 실천이기도 하다. 참고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창조와 통섭의 로컬리티 지평을 열며」, 『로컬리티와 인문학』, 2009.

이 진행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문학관의 경우, 문학관 기획과 건립 과정에 지역 문인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로컬리티의 구현은 대구문학관의 중심 의제라 할 수 있다. 대구문학관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 작가의 전사나 기념을 넘어 대구 문학의 로컬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실현하는 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지역문학관은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문화 구조나 ‘문학적 정전화’⁸⁾로부터 벗어나 지역 문학의 재발견이란 분권적 관점과 문학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곳이다. 문학 정전의 획일성으로부터 탈주하는 문학적 재구성과 새로운 상상력, 긴장과 창조 의 과정에서 지역문학의 존재 이유를 찾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문학적 기억이 전유되고 재현되는 문학관은 과거의 원형 복원이나 기념 사업으로 의미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문학의 기호들이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문학관에 호출된 지역문학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과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등 지역문학의 로컬리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현재, 이곳과 저곳, 지금과 그때의 창조적 긴장과 소통이 지금 여기의 로컬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구 문학관과 로컬리티의 응응한 만남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것이 대구 문학관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곧 로컬의 문화적 공공성을 구축하는 일과 그 주체의 문제, 지역의 일상과 삶의 구체성과 문학관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문학관과 지역, 문학관과 문학관, 지역과 지역을 상호텍스트적인 가치로 인식하는 것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36,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3.3, p.34.

II. 본론

1. 공공성의 실현과 문학관의 공적 주체

로컬리티와 로컬 문화의 표상 공간으로서 대구문학관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방향과 내용 중 하나는 공공성(the publicness)의 실현이다. 그러나 기왕의 국가 주도의 공공성은 근대 민족국가를 근거로 로컬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통제하는 수직적인 것으로 비판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를 근거로 한 공공성의 상품화, 정치화는 또 다른 문제의 지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나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바탕으로 공공성의 재구성⁹⁾에 대한 문제가 국가 공공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주도의 공공성에 의해 통제되었던 로컬리티 공공성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공공성의 한계와 자본의 상품 논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로컬 주민들의 공동체 기반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로컬 공공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 로컬의 공공적 가치와 문제의 지점을 직접 기획하고 토론, 참여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실천적 로컬 공공성을 구현한다는 말이다.

국가와 자본은 통제와 식민화를 존재 방식으로 하는 규율체제란 점에서 로컬과 개인의 자율성은 사유화되거나 억압된다. 하버마스의 주창처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컬의 공공성과 공적 주체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과정에 로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대와 이해의 공존을 실현하는 로컬 공공성과 주민들의 주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공공성과 구별되는 로컬의 공공성이며 주민이 로컬의 가치를 스스로 실현 하는 과정인 것이다.¹⁰⁾

9) 하용삼·문재원, 「공공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철학논총』, 66, 2011, p.423.

그런 의미에서 로컬의 공공성은 로컬을 삶의 터전으로 하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행위와 가치가 공존하고 내외부가 상호 소통하는 현장으로서의 로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로컬의 공공성은 주민 자치, 소통을 통한 가치 실현,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의 재발견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지역문학관이 지역 문학과 문화를 통해 로컬의 가치와 다양성, 지역적 삶의 문화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컬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학관의 전형적인 예로서 대구문학관의 로컬 공공성을 살펴보는 것이 현재 지역문학관의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구문학관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 글을 통해 대구문학관의 성격을 잠시 살펴보자.

그것은 첫째, 대구가 자랑스러운 예향(禮鄕)이란 점에 대한 강조, 둘째, 대구문학의 역사와 위상을 증명하는 공간, 셋째, 타문학관과의 차별화와 대구문학만의 지형도 구축, 넷째, 시민과 문인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의 기능 등이다.¹¹⁾

이 중에서 특히 ‘시민과 문인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에 대한 선언은 의미있는 것이다. 이는 로컬의 구성원들을 ‘시민’으로 호명함으로써 국가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문화 주체를 선언하고 있으며, 공간을 개방하고 열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선언의 대부분은 예향(禮鄕)으로서의 대구에 대한 강조, 대구만의 문학관, 차별화 되는 문학관을 전면화함으로써 로컬 문화의 공공

10) 김기성, 『시민자치와 정치적인 것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99, p.162.

11) 대구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modl.or.kr/contents/main/main.asp> 참조.

적 가치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대구문학의 역사와 위상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는 대구문학을 스스로 신화화함으로써 주민들 혹은 로컬 외부와의 관계를 폐쇄화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구문학관은 로컬리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구문학관은 기본적으로 로컬 사람들의 문화적 구심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개별 구성원 간의 관계는 물론 로컬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공동체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로컬의 공공적 가치를 문학관을 통해 실천하는 문화 공간의 새로운 표상 체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로컬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 즉 공적 주체(public individual)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는 문학관이 로컬의 문화적 공간으로서 로컬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문학관, 그리고 문학관을 통한 로컬리티의 실천 등과 연계되는 로컬 공동체의 실현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로컬 공동체는 로컬의 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 의식적 노력 등을 통해 해결하고, 나아가 공공의 가치를 주민 스스로 실현하는 연대적 삶을 의미한다. 이는 곧 공적 주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을 공공의 광장으로 불러내어 그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자 개인의 영역을 공동의 관심사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¹²⁾ 그리고 이러한 공적 주체가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적 과정과 실천, 소통을 통한 상호주체성 등이 구체적으로 요청된다. 그런 점에서 공적 영역으로서의 문학관은 로컬리티와 공공성을 매개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등장하게 된다.

12) 이기호,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한일간 시민운동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NGO』 창간호, 한양대 제삼섹터연구소, 2003, p.175.

지역문학관이 로컬 공공성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① 문학관은 물론 지역 내외부를 연결시키는 공간 ②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 ③ 주민 등의 참여가 실현되는 공간 ④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성에 의한 프로그램 공간 ⑤ 지역과 장소성의 맥락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전략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³⁾ 이는 지금까지의 문학관의 표상 체계, 즉 지역 문학에 대한 신화적 재구성 및 담론, 수직적인 계통과 나열적인 전시, 문학관 안팎의 단절, 발신자 중심의 구성 등의 문제를 새롭게 재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구문학관의 공간 배치를 통해 문학관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과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문학관은 대구문학의 역사와 지역 작가에 대한 소개 및 작품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구성과 함께 ‘중군문인 방송 체험’, ‘작가와의 동행’ 등 체험 코너와 ‘동화동시 구연 및 감상’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 문학의 가치와 역사의 재발견 공간과 관람객의 체험 및 감상 공간이다. 우선, 지역문학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공간을 살펴보면,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소개를 공간 배치의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른 문학관과 유사한 형태로 지역문학의 역사를 토대로 작가와 작품을 나열한 방식이다. 물론 지역문학에 대한 이해와 소개를 위한 일정한 나열과 병렬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전시의 흐름 속에 관람객의 대구 문학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이란 관점이 부재한 것은 문학관 스스로 한계를 노정한 것이다. 단순한 소개와 이해를 넘어 관람객들은 주민들이 발견하는 대구문학의 가치와 이해는 전시 공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대구문학의 역사를 절대적인 가치로 구성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전시한 공간에서

13) 신문수, 「도시 외부공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구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학위 논문, 2009, p.80.

관람객은 대구문학의 위대성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대구문학의 가치를 재 발견하는 과정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전화 된 대구문학의 전개는 관람객은 물론 로컬의 주민들의 참여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구문학의 절대적인 위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나의 가치’와 ‘주민 스스로 발견하는 대구문학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시나 체험 감상 공간과 함께 로컬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남과 활동, 공유와 토론의 공간이 절실하다. 전시 중심이 아니라 관람객과 주민들의 문학적 만남과 활동이 공간구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영역을 분리하기보다 경계를 구획하지 않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문학관을 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 관람객과 공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관람객 혹은 주민들 간의 소통이 문학적 발견으로 연결되는 공간 개념과 배치가 일어나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배치의 의미를 넘어 로컬 공공성이 문학관이란 공간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학관을 통해 지역 문학을 신화화하거나 기념화 하는 기존의 계몽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문학과 주민, 관람객과 문학관이 연대와 소통을 통한 로컬의 공공적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지역 문학관은 문학적 체험과 이해를 토대로 로컬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문학관이 로컬 문학을 표상하는 배치 공간의 역할을 넘어 로컬의 연대와 소통, 만남과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로 표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관에는 문학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격언처럼 문학을 실현하는 실체들, 즉 문학관 밖에 있는 주민들과의 교감이 필요하다.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세계와 문학관을 연결시키고 로컬의 삶의 미세한 부분들이 문학관 속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문학관이 지역 문인이나 지자체 공무원 혹은 일부 기획자 등

에 의한 문학관 내부의 기획이나 설계로 구성될 경우, 문학관은 스스로 위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 문학관에서 지금까지 기획한 다양한 전시들, 지역 여성문인전, 이상화 특별전 등은 지역 문학에 대한 기획자들의 이해와 의미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구 문학관이 기획하고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방향은 대구 문학과 주민들을 만나게 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로컬적 삶과 문학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문학관을 사적/공적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로컬적 실체로 받아들일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문학관의 로컬 공공성은 이러한 공적 주체들이 문학관을 직접 운영하고 기획하며 공존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문학관의 실존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공간과 일상 속의 문학관

지역 문학관이 로컬리티를 구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 공간과 일상을 문학관 속으로 수렴하거나 역으로 문학관을 지역의 생활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일이다.

지역과 작가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살았던 곳’, ‘작품의 무대’, ‘태어난 곳’ 등 공간적 배경이 주로 언급된다. 지역 공간은 작가의 삶이 응축된 물리적 장소이면서 물리적 집적 그 이상의 것으로 작가의 내면이 투영된 의미의 상관물이다. 동시에 그 속에는 지역적 삶의 총체성이 문화적 양식으로 존재하며 지역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수많은 표현, 즉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다.¹⁴⁾ 그러므로 지역 공간은 수신자 혹은 독자(관람자)에 의해 읽혀

14) 김영순·정미강,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학』 24집, 텍스트언어학회, 2008, p.168.

지는 텍스트이자 문화적 감각의 실체이기도 하다. 문학 텍스트가 그것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서사 장치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공간은 사람들이 직접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화 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은 사고를 통해 인지하고 관념을 통해 읽어내는 텍스트가 아닌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 인지하는 텍스트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학관이 지역과 작가를 매개하는 구체적인 실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학관 내의 문학 텍스트와 지역 공간이라는 텍스트를 연결하는 표상 장치가 필요하다. 즉 텍스트 전시에 앞서 지역 공간과 작품(작가)의 내외적 연결고리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원주에 있는 박경리문학공원(문학관)은 지역의 일상과 공간이 문학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경리문학공원은 1999년 준공 당시, 작가를 기념하는 기념공원과 박경리 문학을 보여주는 주제공원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이는 소설 『토지』를 집필한 박경리 선생의 옛집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라는 지역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박경리문학공원은 소설 『토지』의 집필 공간으로서의 ‘원주’ 보다 소설 작품 ‘『토지』’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다. ‘홍이동산’, ‘평사리마을’, ‘용두레마을’ 등 토지를 대표하는 인물, 사건, 장소가 공원의 이미지가 되어 있다.

한편, 2010년 8월 ‘박경리문학의집’이 건립되면서 기존의 박경리문학공원(문학관)의 시공간이 확장되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 줄거리, 등장 인물, 사건과 주요 장면 등이 5층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박경리문학의집’이 작가 박경리의 일상 및 생활 공간을 재현하

15) 박경리는 1980년 원주 단구동으로 이주했다. 이주 당시, 이미 『토지』 1,2,3부가 발표되었고, 원주에서는 4부와 5부를 집필했다.

고 있다는 점이다. ‘박경리와 만나다’라는 기획 속에는 작가 박경리가 아닌 인간 박경리가 재현되어 있다.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던 ‘호미, 장갑’부터 재봉틀, 손항아리, 옷 한 벌까지 박경리의 일상 세목이 전시되는가 하면, ‘오리에 모이를 주는 박경리(2층)’, ‘마당에서 고추 말리는 박경리(4층)’ 등 일상사가 각 층 입구에 사진들로 펼쳐져 있다. 그리고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 박경리’를 등장시킴으로써 일상 공간과 문학이 만나는 상상의 지점을 관람객(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일상(공간)을 통해 지역 ‘원주’를 인식하는 매개체로서 ‘박경리문학의집’이 기획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원주와 박경리를 연결한 기획은 5층 세미나실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작가의 대형 브로마이드와 함께 작가의 산문집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박경리의 원주문화통신』을 내용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은 ‘원주의 작가 박경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단구동 옛집의 일상과 텃밭, 가축, 노동, 생명 등의 이미지를 주제 영상으로 제작한 ‘내 뜰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생명과 환경’이란 원주 사상과 작가 박경리를 내적으로 연결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생명과 환경’이라는 작가 사상과 원주의 지역적 표상이 된 ‘생명과 환경’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문학관(박경리문학의집)이 된 것이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문학관의 큰 전제가 되겠지만, ‘토지’의 원형성과 원주의 ‘생명’ 표상을 작가 박경리의 일상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문학관은 새로운 의미의 지역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박경리문학집’ 5층에 걸린 브로마이드에 쓰인 아래 구절은 원주와 박경리의 관계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내가 원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산천을 사랑한다는 얘기다. 원래의 대지, 본질적인 땅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原州>, 이름 그 자체를 나는 사랑했는

지 모른다. 사람들은 얼마나 멀리 그 대지의 모성으로부터 떠나 있는가.”¹⁶⁾

대구문학관 또한 그 내부를 구성하는 작가와 지역의 연결 지점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대구 언어와 공간, 지역 정서와 작가의 일상 그리고 지역의 역사 속에서 대구의 제 요소들은 작가와 만난다. 물론 작가와 작품 속에도 대구가 있다. 대구문학관이라는 공간 혹은 장소가 이를 매개하는 의미적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 공간의 장소성¹⁷⁾을 강화한 문학관의 사례 또한 지역과 작가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장소성은 지역 환경이나 공간 등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차이의 기호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장소의 정체성과 역사 등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담양군에 있는 ‘가사문학관’의 경우는 주변의 누정 환경이 가사 문학의 역사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전달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비록 ‘가사문학관’의 경우처럼 풍부한 공간 조건은 아니지만 지역 공간의 발굴과 복원을 통한 경험 공간의 확장 등 지역문학관의 장소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강원도 봉평의 ‘이효석문학관’은 문학관 주변에 60여만m²의 메밀밭을 조성, 작품 『메밀꽃 필 무렵』의 주요 배경을 현실 공간에 재현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공간은 작품의 공간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경험치를 확대하는 전략에 의한 것이다. 동시에 봉평의 재구성이란 측면에서 현실 공간은 문학적 장소로 이미지화 된다. 현실 봉평과 문학적 봉평이 공존하는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문학을 실현하는

16) 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박경리의 원주문화통신』, 1994, 나남, p.14.

17) 장소란 가치가 개재된 공간 또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서, 공간이 지니는 물리적 속성 이외에 특정한 활동과 상징성을 포함하는 공간이다. 정경운, 『한국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5, 2005, p.26.

특별한 장소성을 획득한다.

‘청마문학관’ 또한 장소성 획득을 위한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학관 중 하나이다. 경남 통영에 있는 ‘청마우체국’은 통영우체국을 개명한 것이다. 우체국은 유치환의 시 『행복』과 관련된 건물로, 유치환이 20년간 이영도 시인에게 5천여 통의 편지를 보낸 곳으로 유명하다. 『행복』 또한 그 편지 중 일부로 알려져 있다. 통영시는 이 우체국을 중심으로 200여 미터를 ‘청마거리’로 지정하고 정량동에 ‘청마문학관’을 건립하였다. 유치환이 교편을 잡았던 지역적 연고를 토대로 통영시는 지역적 공간을 의미화 하는 장소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 둘러싼 연정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청마우체국’과 ‘청마거리’, ‘청마문학관’이 입체적으로 장소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성은 현실 공간과의 문맥적 고려가 없는 경우, 오히려 현실과 문학을 분리시키는 낯선 공간으로 전략한다. 또한 지역적 삶의 실체와 만나지 못하는 작가 중심의 기념적 장소로 재구성 될 때, 문학관은 물론 지역 공간마저도 무의미한 물리적 장소가 될 뿐이다. 자연히 지역 정체성을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3. 참여와 소통, 그리고 상호텍스트적인 문학관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문학관의 재구성은 소통 방식과 참여의 구조화와도 깊이 관련된다. 문학관의 소통 방식은 양방향성과 다양성을 그 전제로 해야 한다. 반복적 재현을 통한 정전 문학(작가, 작품)에 대한 교육이나 인지, 작가에 대한 기념비적 전시가 지역문학관의 논리가 될 수 없다. 만일 지역문학관이 유명(중앙) 작가의 전시나 기념에 머문다면, 그것은 ‘이미 중앙집권적 헤게모니에 의해 정전화된 작가들을 지역적으로 할당, 전유하

는¹⁸⁾ 것에 불과하다.

문화적 로컬리티가 기억과 재현을 통해 다양한 지역 주체들을 매개하면서 정전(작가)의 차이를 발생시키거나 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문학관은 소비 주체들의 다양한 향유 및 소비 방식을 긍정하는 새로운 배치와 이해가 필요하다.

경남 하동에 위치한 ‘평사리문학관’은 소설의 주 무대인 평사리에 대한 장소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지역 주민 혹은 관람객(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배치로 주목받고 있다. ‘평사리문학관’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 『토지』와 작가 박경리, 평사리에 대한 소개와 전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소설 속 평사리의 이미지를 ‘평사리의 한가위’, ‘최참판의 장례식’, ‘간도로 떠나는 서희’ 등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히 행정구역상의 하동군 평사리는 소설의 무대인 평사리로 장소화 된다. 한편, ‘평사리문학관’은 ‘내가 쓰는 소설 풍경’이란 또 하나의 특별한 세션을 두고 있다. 이 공간은 『토지』의 여러 판본과 함께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곳으로 기획된 것이다. 일방적인 소비의 관람 형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에 의해 재해석되는 양방향적인 문학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 공간 기획은 남다르다. 이러한 배치는 결국 재현된 평사리를 넘어 새로운 평사리의 가능성을 관람객 혹은 지역 주체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체험적 공간으로부터 생산적 참여의 공간으로 문학관의 체질을 전환시키자는 문학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문학관 밖의 최참판댁을 비롯한 드라마 세트장의 체험이 문학관 내부로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효과도 함께 거두게 된다.

그럼 문학관과 지역민들은 어떻게 소통하는가. 과연 지역 주민들의 능동

18) 권명아, 『기념의 정치와 지역의 문화정체성-저항과 글로벌 마케팅의 사이』, 『인문연구』53, p.28.

적인 참여가 문화의 중앙 집중화로부터 벗어나는 지역의 전략적 진지를 제공해 줄 것인가. 문학관에 전시된 ‘자료’의 완결성이라는 ‘자료 페티시즘’과 거리를 두고 자료와 수용자(관람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역동적 장소로서의 문학관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지역 주체와 수용 주체들의 실천적 개입은 주어졌 문학관을 변형하고 비틀어 문학관을 새로운 문화적 시공간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가들의 중앙적 정전으로부터 비껴나는 차이의 지역문학관을 실현할 경우,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조건이 된다.

‘박경리문학공원’은 지역민들과의 밀착도가 높은 문학관으로 알려져 있다. 박경리문학공원은 운영에서 있어서 지역민과의 관계 문제를 그 중점 사항으로 하고 있다.¹⁹⁾ 활성화 되지 못하는 1996년 문학공원에 대한 논의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후, 문학관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 되고 토지문학공원 전시실이 완공(2001.7)되는 일련의 과정은 지역민의 주도 하에 진행된 것이다. 이후 지역민들의 참여와 봉사가 문학관을 운영하는 핵심 동력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경리문학공원’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소설 『토지』 속 편지공모/연변 작가 초청강연회 및 간담회/서사음악극 갈라 콘서트/소설토지학교/토지한국사 학교/원주문학아카데미/소설 『토지』와 함께하는 문학탐방“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은 그 수준을 떠나 지역 주민과 문학관의 관계 정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문학적 실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작가에 대한 문학적 교육이나 기념적 의미화를 넘어 지역민 혹은 수용자들의 사적 경험을 수용하는 새로운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9)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36,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3.3, p.47.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에코뮤지엄(ecomuseum)은 작가 기념적 문학관을 넘어서는 지역문학관의 방향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 환경의 발달과정과 역사를 탐구하고,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현지에서 보존·육성·전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박물관’으로 정의된다.²⁰⁾ 특화된 기능적 문화 시설로부터 벗어나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생활과 환경, 문화적 감성 등을 수렴하고 다시 지역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구성체를 에코 뮤지엄이라 부르고 있다. 지역문학관이 ‘장소마케팅’의 차원을 극복하고 로컬리티의 실현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코뮤지엄의 방향성과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대구문학관은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접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생활과 환경적 조건을 물론 대구문학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유산까지를 주요 재료로 하는 문학적 생산과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한편, 대구문학관이 연고주의에 의한 장소신화 만들기에서 벗어나 로컬리티의 창조적 생산을 위한 문학 공간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외부의 다양한 문화적 조건들과 ‘상호포괄’의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지역 정체성의 지표’²¹⁾로 이상화라는 국민작가를 문학관에 재배치 할 때, 이는 다른 지역과의 차이의 기호로 이상화를 호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대구문학관이 차이나 구별을 통해 지역을 중심화

20) 관련 자료로는 김창호, 『문학공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김점석,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본 문학관 운영 모델 개발과 에코뮤지엄로서의 발전 가능성』, 『한국프랑스학회』 2005. 등이 있다.

21) 천정환, 『지역성과 문화정치의 구조·근대화 연대의 문화정책과 지역성의 재편』, 『사 이』4, 2008, p.113.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역으로 대구문학관이 이상화를 폐쇄적 ‘지역 상징’을 넘어 당대 문화의 이동과 교류, 집적의 결과로 이해할 때, 이상화는 당대 문화의 융합적 결과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대구문학관이 영역화된 장소를 거부하고 ‘상호포괄’의 연대 위에서 생산적 사유를 시작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구문학관은 대구시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향촌 문화관’과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대구문학관의 독립성과 대구문학의 상징성을 축소시킨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대구문학관의 연대성과 상호 텍스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역사문화재현관의 문헌 및 자료는 당대의 문화적 흔적이자 생활사들이다. 그러므로 문학관과 재현관이 그 영역과 경계를 넘어 장소 융합과 문화적 결합을 시도한다면 문학관과 재현관은 지역에서 문화 생산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재현관의 일부는 대구근대문학을 생활사 측면에서 재현하고 있으며, 장소성을 강화하여 향촌동 일대와 북성로, 종로 일부를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대구문학관의 자료와 자원들이 이들 생활사와 문화적 공간을 만날 때, 대구의 근대문학은 더욱 실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관이 문학관 밖의 당대 생활사와 융합될 때, 지역문학은 살아 있는 문화사로 수용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로컬리티가 폐쇄적 지역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에서 말한 지역문학관의 지역성은 역설적으로 지역을 넘어선 지점에서 발견된다. 육필 원고와 여러 판본들, 안경이나 필기구로 구성된 집필 공간, 일기, 사진, 편지, 심지어

어 학력증명서까지 전시된 문학관이 단순한 지역 상품의 전시나 기념에 거친다면, 그것은 ‘박제화 된 문학관’에 불과하다. 이는 전시된 모든 자료를 지역 혹은 향토적 특징으로 귀결시키는 해석의 진부함에 대한 지적이며, 작가의 개성을 지역문학관 내부로만 수렴하려는 습관에 대한 반성이다. 지역문학관이 지역 작가의 육필 원고를 전시함으로써 증만되는 ‘자료 폐티시즘’²²⁾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로지 지역의, 지역을 위한, 지역에 의한 지역문학관 만들기가 이루어질 때, 즉 문학관이 ‘지역 관람’의 물리적 장소로만 기능할 때, 유리관 속 자료는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일본 ‘홋카이도 시립오타루문학관’의 몇 가지 시도는 ‘자료 폐티시즘’과 ‘지역주의’적인 몰입을 극복한 예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정민이 짧은 글²³⁾에서 밝힌 오타루문학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토 세이(伊藤整)’의 문제적 기록과 메모는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토 세이는 홋카이도 마쓰마에군(松前郡) 출신 문학가로, 1950년에 번역한 D.H.로렌스의 『채털리부인의 연인』이 외설 죄목으로 기소 당한 바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번역 원고에 짤막한 글을 기입하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외설 해석에 대한 저항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후 이 메모와 기록에 대한 조합과 해석은 새로운 『채털리부인의 연인』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문제적 기록과 메모를 공개한 오타루문학관의 관장 가메이 히데오(龜井秀雄)는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위한 것이라 그 이유를 밝혔다. 문학관과 지역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자료를 환원하기 위한 이 노력은 히데오 관장의 문학관 운영의 기본 지침인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주제로’, ‘로케이션의 문제’,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자료의 활용 방법’ 등에 맞닿아 있다. 이는 자료 전시, 보

22) 조정민, 『발견된 지역과 만들어진 ‘문학관’을 넘어』, 『로컬리티와 인문학』, 2011, p.7.

23) _____, 위의 논문, 2011, p.7.

존의 문학관에서 교류와 활용의 문학관으로 지역문학관을 재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끊임없이 상대화 하는 것, 타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역을 재발견 하는 것, 비교와 교류를 통해 가변적인 지역문학관을 운영하는 것 등이 제안되고 있다. 진정한 로컬리티는 지역이 세상의 중심(중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비극을 낳을 뿐이다. 대구문학관이 로컬리티의 실천적 장으로서 지역활을 다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상대화 하고 교류와 비교의 거점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 권명아, 『기념의 정치와 지역의 문화정체성-저항과 글로벌 마케팅의 사이』, 『인문연구』53, p.28.
- 김기성, 『시민자치와 정치적인 것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99, p.162.
- 김영순·정미강,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학』 24집, 텍스트언어학회, 2008, p.168.
- 김점석,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본 문학관 운영 모델 개발과 예코뮤제로서의 발전 가능성』, 『한국프랑스학회』 2005.
- 김종우·윤학로, 『김유정 문학촌과 이효석 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비교문학』41, 2007, p.376.
- 김창호, 『문학공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36,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3.3, p.33.
- 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박경리의 원주문화통신』, 1994, 나남, p.14.
- 신문수, 『도시 외부공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구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

위논문, 2009, p.80.

이기호,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한일간 시민운동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NGO』
창간호, 한양대 제삼섹터연구소, 2003, p.175.

정경운, 『한국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문화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25, 2005, p.38.

천정환, 『지역성과 문화정치의 구조-근대화 연대의 문화정책과 지역성의 재편』, 『사이』4, 2008, p.113.

하용삼·문재원, 『공공성과 로컬리티의재구성』, 『철학논총』, 66, 2011, p.423.

D. Massey, 『The Politi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p.138-139.

Abstract

Representation of Locality Culture and Regional Literature Centers

Park, Seung-Hee

Regional literature centers are the representative space that symbolizes locality culture. Literature centers, which were built with the aim of finding locality and literary values through cultural symbol system, has settled themselves as representative space that reveals desires such as regional provincialism and self-referentiality. For the space to overcome this, symbolize regional literature, and realize locality for overcoming the mainstream and unilateral study of culture and politics, we have a desperate need to reorganize regional literature centers. To this end, to realize the common value of locals, we need to build literature centers that can commune with residents' daily life and life world, and reposition it as places to experiment exchanges and cultural production. In the end, this is related to the issue of how to treat locality literature and will be the core mechanism of regional literature centers.

Key Word : Regional Literature Center, Locality, Cultural Representation, Local literature museum, Public, life-world

박승희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 bround33@ynu.ac.kr

이 논문은 2016년 2월 29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